

朝鮮時代 謝安携妓東山圖의 研究

유 옥 경 *

- I. 머리말
- II. 중국 謝安携妓東山圖의 연원과 전개
 - 1. 사안휴기동산 도상의 문헌출처
 - 2. 사안휴기동산도의 제작양상
- III. 조선시대 謝安携妓東山圖의 성격구명
 - 1. 문헌 속의 사안휴기동산도 作例와 淝水勝捷
 - 2. 현존하는 사안휴기동산도 표상의 함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謝安(320-385)은 중국 東晉의 문인, 사대부, 군사전략가, 정치가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風流瀟灑한 宰相으로 평가되었으며, 경륜과 지략이 뛰어난 인물로 인식되었다. 중국에서는 회화사상 사안을 주제로 한 작품이 비교적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사안이 出仕하기 이전 東山에서 은거하면서 풍류를 즐긴 정경을 제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기녀를 동반하고 동산에 오르는 장면을 담은 謝安携妓東山圖이다. 사안휴기동산 故事의 연원은 중국이지만 조선 전 시기를 걸쳐 시대적 이념을 주도하면서 인식되어지거나 그려졌다.

필자가 조선시대 사안휴기동산도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한 것은 두 가지 문제에 접하면서였다. 첫 번째로, 조선 왕실의 제작 의도에 따라 사안휴기동산도의 기능성과 감상

* 이화여자대학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1010693)

성의 정도가 조절되는 양상을 보인 점이다. 두 번째로, 한 화가가 사안휴기동산도의 같은 주제를 그렸다 하더라도 작품 속의 畫題에 따라 그 시각적 표상의 함의를 달리 표현한 점이다. 현존하는 金弘道(1745-1806경)의 두 점의 작품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故事人物圖屏》중의 〈東山雅襟〉과¹, 간송미술관 소장의 《故事人物圖屏》중의 〈東山携妓〉에서이다.² 특히 그간 〈東山雅襟〉의 畫題로 쓰여진 ‘襟’이란 글자를 단지 ‘옷깃’의 의미로만 이해하여 기녀와 관련된 풍류를 담은 그림으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襟’은 위진시대의 혼란스런 세상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한 사안의 마음속에 품은 ‘濟世蒼生’의 함의의 용어로 접근되었다.

조선시대의 사안휴기동산도는 시각 문화적 표상물이면서 인물화의 주제와 제재로도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술사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내재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³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사안휴기동산도의 회화적 특징과 성격규명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에서의 문헌적 원형을 추적하고 작품의 제작양상을 검토한다. 나아가 조선시대 문헌기록에서의 사안휴기동산도가 어떻게 거론되고 평가되었는지를 살펴 정리하고, 특히 현존하는 김홍도의 두 점의 작품을 면밀히 고찰한다. ‘濟世蒼生’과 ‘風流瀟灑’로 대별하여 그 시각적 표상의 함의가 집중 논의될 것이다. 조선시대 회화문화에 대한 학술적 이해의 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1 8폭 가운데의 나머지 작품은 〈赤壁夜泛〉, 〈雲臺晝眠〉, 〈醉後看花〉, 〈已橋受書〉, 〈洞庭飛劍〉, 〈峴岵輕裘〉, 〈指端觀月〉 등이다. 작품의 매 폭 위에 소재가 된 고사를 제목처럼 적어 넣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2 8폭 가운데의 나머지 작품은 〈武夷歸棹〉, 〈五柳歸庄〉, 〈黃庭換鵝〉, 〈東江釣魚〉, 〈西湖放鶴〉, 〈花外小車〉, 〈融峰醉下〉 등이다.

3 현존하는 김홍도의 〈東山雅襟〉(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東山携妓〉(간송미술관 소장)에 대한 간략한 작품 설명은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 편저,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특별전』(삼성문화재단, 1995), pp. 268, 270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pp. 517, 519 에도 간단한 작품 설명이 소개되어 있다. 謝安의 ‘淝水功績’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이성훈, 「속중대역사고사도 제작과 〈謝玄破秦百萬兵圖〉의 정치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62(2009), p. 34에서 보이며, 사안의 인물에 대한 품평은 김진영, 「世說新語의 품평을 통해 본 王導와 謝安의 인물형상」, 『중국문화연구』 3(2004), pp. 351-379가 참고된다. 한편, 중국에서의 사안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陳谷峰, 「謝安形象的歷史形塑及其文化意義初探」, 國立東華大學中國語文學系 碩士論文(2008)을 들 수 있다. 葉庭嘉, 「試探沈周《仿戴進謝安東山圖》意涵」(臺灣國立中央大學藝術學研究所, 2013), pp. 34-50 등도 찾을 수 있다.

II. 중국 謝安携妓東山圖의 연원과 전개

1. 사안휴기동산 도상의 문헌출처

먼저 조선에서 제작된 사안휴기동산도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작품이 산출되었던 당대의 지배질서와 환경에서의 실상파악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를 검토한다. 사안, 휴기, 동산으로 구성된 조합이미지의 문헌적 原型을 남조 송나라의 劉義慶(403-444)이 편찬한 『世說新語』와⁴, 『세설신어』의 기록을 토대로 삼았던 『箚書』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1) 謝安

사안은 일신에 다양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성공한 정치가, 은일의 사인, 풍류의 재상등이다. 『세설신어』에서 등장회수가 총 115회로 가장 많으며, 품평회수는 44회, 피품평 회수는 14회이다. 품평을 하는 경우가 피품평의 무려 3배나 되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사안의 명성과 지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⁵

『箚書』 권79 「謝安列傳」을 통해보면, 사안이 처음에 관직을 지내다가 병이 들어 그만둔 일, 회계에 거주하며 황제의 부름을 받고도 가지 않은 채 동산에 주거지를 마련한 일, 나이 40이 넘어서 桓溫(312-373)의 휘하에 나간 일, 前秦의 왕 苻堅(재위 357-385)의 백만 대군을 앞아서 물리쳤던 일, 벼슬이 太保에 이른 일 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사안은 자가 안석이다. 처음에 좌저작랑을 지내다가 병이 들어 관직을 그만두었다.

안석이 회계에 우거할 때 왕희지, 허순, 지둔과 함께 어울렸는데 황제의 부름을 받고도

가지 않은 채 결국 동산에 주거지를 마련했다. 나이 40이 넘어서 비로소 벼슬에 뜻이

있었는데 이때 정서대장군 환온이 청하여 사마를 삼으니 조정 선비들이 모두 전송했다.

⁴ 후한 말에서 동진말까지의 약 200년 동안 실존했던 제왕과 인물들의 독특한 언행과 일화를 주제별로 수록해 놓은 이야기 모음집이다. 학술사상의 측면에서는 위진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사조인 玄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며, 사학의 측면에서는 실존인물에 대한 기록인 만큼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⁵ 김진영, 『주요인물을 통해 본 世說新語의 인물품평』(한국학술정보, 2006), p. 144.



도 1 <謝安石像>, 『人物五卷』 『三才圖會』, 明(『三才圖會』 2권, 成文出版社有限公司, 1970)

후에 부견이 백만 대군을 비수 부견에 이끌고 침입했을 때 정토대도독에 임명되었다. 조카 사현 등이 부견의 군사를 크게 대파했다는 승전 보고를 받고도 손님과 바둑을 두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분위기를 제압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 공으로 총통에서 태보에 승진했다.⁶

이러한 사안의 행적은 명나라 때에 편찬된 『三才圖會』 『人物編』의 <謝安石像>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도 1). 글과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携妓東山

사안이 기녀를 대동하고 유상한 일은 『世說新語·識鑒』편에서 찾을 수 있다. “사공은 동산에서 기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하였다.⁷ 『晉書』 권79 『謝安列傳』에서도 “언제나 유상할 때면 반드시 기녀를 따르게 했다”하였다.⁸ 李白(701-762)의 『憶東山』에서도 “나는 지금 사안처럼 기생 데리고 길게 읊조리며 세속을 떠나리로다”하였고⁹, 白居易(772-846)의 『候仙亭同諸客醉作』에서도 “사안은 산 밑에서 기생만 데리고 놀았네”라고 하였다.¹⁰ 蘇軾(1037-1101)의 『遊東西巖』에서의 “홀로 歌妓를 데리고 동쪽 서쪽 산을 올라 왔네”라고 했음도 찾을 수 있다.¹¹

그러면 사안이 기녀를 대동하고 유상하던 會稽의 東山은 어떠한 지형적 특성과 모습

6 “謝安字安石 初除佐著作郎 並以疾辭 寓居會稽 與王羲之許詢支遁遊處 被召不至 遂棲遲東山 年四十餘 始有仕志 征西大將軍桓溫請爲司馬 朝士咸送 苻後率衆 號百萬 次于淮淝 加安征討大都督 玄等既破堅 有驛書至 安方對客圍碁 其矯情鎮物如此 以總統功 進拜太保”라고 하였다. 房玄齡(唐) 等撰, 『晉書』(北京: 中華書局, 1993), pp. 2072-2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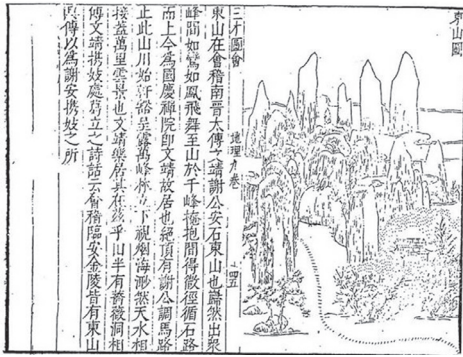
7 “謝公在東山畜妓”라고 했다. 劉義慶 撰, 安吉煥 譯, 『世說新語(중)』(明文堂, 2006), p. 212.

8 “然每遊賞 必以妓女從”이라 했다. 房玄齡(唐) 等撰, 위의 책, p. 2072.

9 “我今携謝妓 長嘯絕人群”이라 했다. 『全唐詩』 卷182(北京: 中華書局, 1992), p. 1859.

10 “謝安山下空携妓”라고 했다. 『全唐詩』 卷443(北京: 中華書局, 1992), p. 4957.

11 “獨携縹渺人 來上東西山”이라 했다. 蘇軾, 文誥, 馮應榴 輯注, 『蘇軾詩集』(臺北: 學海出版社, 1983), p. 495.



도 2 <東山圖>, 『地理九卷』 『三才圖會』, 明『三才圖會』, 1권

을 지니고 있을까. 회계의 산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世說新語·言語』에서 보인다. “고장강(고개지)이 회계에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곳 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해 묻자, 고장강이 이르길 천개의 바위가 빼어남을 다투고 만개의 골짜기가 흐름을 다투는데, 초목이 그 위를 온통 뒤덮고 있어서 마치 구름과 노을이 질게 깔린 듯하다”라고 했다.¹²

구체적인 회계 동산의 특징은 송대 施宿(1164-1222)의 『會稽志』를 통해 드러난다.

동산은 절강성 회계군 상우현 서남쪽에 있으며, 동진의 태부인 사안이 은거하던 곳으로, 일명 사안산이라고도 부른다. 여러 봉우리 가운데에서 가파르게 솟은 채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은 난새와 학이 날면서 춤추는 모습과 같다. 그 산 정상에는 사안이 만든 마차 길이 있고, 가파른 숲속에 있는 백운당과 명월당 두 집터에서 푸른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하늘과 바다가 닿은 듯하여 절경이다. 내려오면서 오솔길에 나타난 국경사는 바로 태부의 고택이며, 곁에 있는 장미동은 태부가 기녀를 데리고 노닐던 곳이다.¹³

이러한 회계동산의 산세는 『삼재도회』 『地理編』의 <東山圖>에서도 간취된다(도 2).

2. 사안휴기동산도의 제작양상

다음으로는 중국에서의 사안휴기동산도의 제작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문헌기록 속에서의 동진시대 顧愷之(약 345-약 406)의 <謝安像>을 비롯하여¹⁴, 唐朝 周古言의 <謝安

¹² “顧長康從會稽還 人問山川之美 顧云 千巖競秀 萬壑爭流 草木蒙籠其上 若雲興霞蔚”라고 했다. 劉義慶 撰, 劉孝標 注, 金長煥 譯注, 『世說新語(상)』(살림출판사, 1996), p. 209.

¹³ “東山在上虞縣西南四十五里 晉太傅謝安所居也 一名謝安山 巖然特立於衆峰間 拱揖蔽虧 如鸞鶴飛舞 其巖有謝公調馬路 千嶂林立 白雲明月二堂址 下視滄海 天水相接 蓋絕景也 下山出微徑 爲國慶寺 乃太傅之古宅 傍有薔薇洞 俗傳太傅携妓女遊宴之所”라고 했다. 施宿, 『山, 上虞縣』, 『會稽志』 卷9(臺北: 商務印書館, 1983), p. 187; 이태백 著, 황선재 역주, 『이태백 명시문 선집』(박이정, 2013), p. 280.

¹⁴ 張彥遠 지음, 조송식 옮김, 『歷代名畫記(하)』(시공사, 2008), p. 77.



도 3 傳樓觀,〈謝安東山圖〉,南宋,비단에 수묵, 175.9×88.3cm, Mr and Mrs John D. Rockefeller III Collection(『海外藏歷代名畫』3, 湖南美術出版社, 1998, 圖 77)

石携妓東山圖¹⁵, 송대 李公麟(약 1041-1106)의 〈東山圖¹⁶, 崔白(약 1050-1080 활동)의 〈東山圖〉·〈謝安登東山¹⁷, 劉松年(약 1150-1225 이후)의 〈東山絲竹圖〉등을 찾을 수 있다.¹⁸ 또한, 乾隆年間(1736-1795) 황명으로 간행된 陳邦彥(1678-1752)의 『御定歷代題畫詩』의 ‘사안동산도’ 관련의 題跋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송대 朱子(1130-1200)의 「題謝安石東山圖」를 비롯하여, 원대 虞集(1272-1348)의 「題趙師舜謝安遊東山圖」, 王惲(1228-1304)의 「謝太傅東山圖 金黎陽李公泰筆 二首」, 吳鎮(1280-1354)의 「趙仲穆東山圖」, 丁鶴年(1335-1424)의 「題謝安觀山圖」, 그리고 명대 吳寬(1435-1504)의 「謝安遊東山圖」, 徐渭(1521-1593)의 「謝太傅携妓東山圖」 등이다.¹⁹

한편, 현전하는 가장 이른 작품은 남송 樓觀(1265-1274)의 전칭작인 〈謝安東山圖〉일 가능성이 있다(도 3). 화면의 상단에 ‘錢塘樓觀’이라 쓰여 있다. 화면의 하단에는 사안으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쥐고 앉아 있으며, 사안을 경배하듯 서 있는 인물들의 모습도 보인다. 남송화원의 풍격을 체현한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²⁰ 최근의 관련 논문에서는 후대인들이

보고 〈사안동산도〉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²¹

원대의 〈東山絲竹圖〉는 청록산수가 주가 되도록 표현한 작품이다(도 4). 옛 제목은 〈仙莊圖〉로 알려져 있다. 안개가 가득 찬 깊은 골짜기, 다시 그 위의 폭포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까지 아름답게 묘사된 비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물의 표현은 작게 처리했

¹⁵ 孫岳頌編, 『禦定佩文齋書畫譜』卷46(臺北: 商務印書館, 1983), p. 42.

¹⁶ 葉夢得, 『建康集』卷2(臺北: 商務印書館, 1983), p. 606.

¹⁷ 徽宗, 『宣和畫譜』卷18(北京: 中華書局, 1985), p. 519.

¹⁸ 張照等編, 『石渠寶笈』卷8(臺北: 商務印書館, 1983), p. 222.

¹⁹ 陳邦彥, 『御定歷代題畫詩』卷36(臺北: 商務印書館, 1983), p. 449.

²⁰ Richard Barnhart, *Painters of the Great Ming: the Imperial Court and the Zhe School* (Dallas Tex: Dallas Museum of Art, 1993), p. 37.

²¹ 葉庭嘉, 앞의 논문, p. 43.

으며, 군상을 이룬 여인들은 악기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사안이 출사하기 전의 회계동산이 아닌 출사 이후의 금릉동산의 유희정경을 표현한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²² 또한 盛懋(1320-1360 활동)의 〈溪山清夏圖〉와 비교해 볼 때, 표현기법상의 유사함을 찾을 수 있어, 성무나 가까운 추종자의 작품으로도 보고 있다.²³

명대 초기로 추정되는 《四時山景圖》 중의 〈謝安東山〉도 찾을 수 있다(도 5). 봄의 경치를 대표하며, 절파화풍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사안의 앞쪽으로 한 마리의 白鹿이 보이며, 사안과 기녀들은 다리를 건너고 있다. 원래의 고사 중 사안이 다리를 건너는 표현은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백록은 명대 이후 첨가된 도상이라 추정된다.²⁴

沈周(1427-1509)의 〈做戴進謝安東山圖〉(1480)도 살펴볼 수 있다(도 6). 청록산수화풍으로 그려졌으며, 높은 산과 봉우리는 그림 속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한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 ‘錢塘戴文進謝安東山圖庚子長洲沈周臨’이라 쓰여 있다. 사안이 지팡이를 짚고 거



도 4 〈東山絲竹圖〉, 元, 비단에 채색, 187.5×43.7cm, 北京故宮博物院藏(『故宮博物院藏品大系·繪畫編』6, 紫禁城出版社, 2008, 圖66)



도 5 〈謝安東山〉, 《四時山景圖》, 明, 비단에 채색, 83.9×53.0cm, 日本彦根城博物館藏(『海外藏歷代名畫』5, 圖89)



도 6 沈周, 〈做戴進謝安東山圖〉, 1480, 비단에 채색, 170.3×90.3cm, 美國翁萬戈先生藏(『海外藏歷代名畫』6, 圖1)

²² 葉庭嘉, 앞의 논문, p. 43.

²³ 리처드 반하트(등) 지음, 정형민 옮김, 『중국회화사 삼천년』(학고재, 1999), p. 156.

²⁴ 葉庭嘉, 위의 논문, p. 43.



도 7 郭詡, 〈東山携妓〉, 1526, 종이에 수묵, 123.8×49.9cm,臺北故宮博物院(Painters of the Great Ming: the Imperial Court and the Zhe School, 圖148)

니는 가운데 한 마리의 백록이 앞서고 있으며, 사안의 뒤로 4명의 기녀가 따르고 있다. 명대 동진문인들의 풍류가

추앙되었고, 이 시기에는 기녀를 동반하고 유상하는 풍조가 성행했음을 보여준다.²⁵ 이 작품은 다음장에서 살펴 볼 김홍도의 〈동산아금〉과 〈동산휴기〉의 양식분석에 있어 중요한 상관성을 지닌다.



도 8 〈謝安登東山〉, 《山水爭奇插圖》, 1624, 上海圖書館『中國美術全集·繪畫編』20,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8, 圖134)

郭詡(1456-1526 이후)의 〈東山携妓〉(도 7)와 〈謝安小像〉도 간취된다. 모두 백묘화로, 사안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각 작품의 제화시에는 사안의 공적을 찬양하고 인물의 호방하고 비범함을 표현하고 있다.²⁶

²⁵ 葉庭嘉, 앞의 논문, p. 41.

²⁶ 〈동산휴기〉에 적힌 괄후의 글이다.

兩履東山踏軟塵 두 발로 동산의 먼지 나는 길 거닐어도
中原事業在經綸 중원의 사업 경륜함 있다네.

群姬逐伴相歡笑 따라오는 많은 기녀와 함께 환호하며 웃지만
猶勝桓溫壁後人 오히려 환온이 벽 뒤의 사람 숨김보다 낫다네.

〈사안소상〉에 적힌 文徵明(1470-1559)의 글이다.

文采清真絕代人 문채가清真한 보기 드문 사람

一時雅量廟堂欽 일시의 아량을 조정에서 흠모하네.

不緣點虜投鞭舉 부견의 오랑캐 군사들 채찍 던져 강을 메우려 한 것 아랑곳 하지 않았고

剛負平生用世心 평생 세상을 위해 일할 뜻 굳게 지니고 있었네.

위에서의 ‘不緣點虜投鞭舉’는 『晉書』 卷114 「苻堅載記」의 내용이다. 前秦의 왕 苻堅이 東晉을 치려 할제 “우리의 많은 군사가 강에다 채찍을 던지면 강을 메우고 건너갈 수 있으리라(以吾之衆旅投鞭於江足斷其流)”라고 한 부분이다. 房玄齡(唐) 等撰, 앞의 책, p. 2912.

삼도 속에서의 사안이 동산에 오르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山水筆奇插圖》의 〈謝安登東山〉(1624년)에서이다(도 8). 다른 작품에서와 달리 유달리 기녀와 밀착되어 그려진 사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명대 만기에 이르면 창기가 천하에 가득 퍼졌다”했음이 참고된다.²⁷ 청대 華岩(1682-1756)의 〈東山携妓圖〉와 任伯年(1840-1895)의 〈東山絲竹圖〉(1891) 등도 찾을 수 있다.

Ⅲ. 조선시대 謝安携妓東山圖의 성격규명

이번 장에서는 조선시대 사안휴기동산도의 성격규명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먼저 문헌상에서의 사안휴기동산도가 꾸준히 언급되어왔음을 밝히고 시대에 따라 맥락이 달라짐도 살펴본다. 나아가 현존하는 김홍도의 〈東山雅襟〉과 〈東山携妓〉의 면밀한 고찰을 시도한다.

1. 문헌 속의 사안휴기동산도 作例와 淝水勝捷

문헌사료상에는 대개 사안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가 강조되었다. 동산에 은거하며 기녀와 유상한 일과, 前秦 苻堅의 백만 대군을 앞서서 격파한 淝水勝捷에 관한 내용이다.²⁸ 모두 교훈감계적 측면에서 언급되어진다.

먼저 사안휴기동산도의 작례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의 제작 의도에 따라 그 기능성과 감상성의 정도가 조절되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유교정치의 모범을 보인 成宗代(재위 1469-1494)에 謝安携妓東山圖가 歲畫로 제작되어 신하들에게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무와 여색의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감계화의 성격을 지닌다. 成倪

²⁷ “今時(萬曆時)娼妓布滿天下”라고 했다. 謝肇淛, 『五雜俎』 卷8(中國基本古籍資料庫 DB) 참조.

²⁸ 동진의 재상 사안은 苻堅의 출진 소식에 조카 謝玄 등 몇몇 장수를 불러 임무를 맡긴 후, 한가롭게 바둑을 두자고 청한다. 『世說新語·雅量』편에서 찾을 수 있다. “사안이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잠시 후 사현이 회수에서 보낸 사신이 도착하였다. 서찰을 다 보고 나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바둑판을 향했다. 손님이 회수에서의 승패를 물었더니, 대답하길 ‘조카들이 적을 대파했다는군요’라고 했다. 안색이나 행동 거지가 평상시와 다름 없었다(謝公與人圍棋 俄而謝玄淮上信至 看書竟 默然無言 徐向局 客問淮上利害 答曰 小兒輩大破賊 意色舉止 不異於常)”라고 한 내용이다. 劉義慶 撰, 安吉煥 譯, 앞의 책(중), p. 164; 또한 조선의 張維(1587-1638)는 “강좌(동진)의 전공 중에서는 마땅히 비수의 승첩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다(江左戰功 當以淝水之捷爲第一)”라고 했다. 張維, 『謝安石兄弟子姪實成大功』, 『谿谷集』 卷1.

(1439-1504)의 「題麗人圖後」를 통해서 확인된다. “신축년(1481, 성종 12년) 원일에 상께서 세화 6폭을 꺼내시어 승정원에 하사하시니 승지 여섯 사람이 나누어 받았다. 기지(蔡壽, 1449-1515)는 <사안석휴기동산도>를 얻었고 나는 <채녀도>를 얻었다. … 임금께서 하사하신 것이 어찌 아름다움만을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어찌 성색에게 오도되지 않게 경계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한 것이다.²⁹ 이는 성종 22년(1449) 9월의 사안휴기동산의 방탕함을 언급한 기록과도 부합된다. “진 나라 때에 사안이 기생을 데리고 동산에서 놀았던 까닭으로 그 풍속이 끝내는 방탕하고 허무함을 숭상하여서 진나라 왕실의 멸망을 재촉하였다”라고 한 부분이다.³⁰ 그러나 이와 달리 성종 때의 문신인 南孝溫(1454-1492)은 「屏風十詠」중의 ‘東山携妓’에서 사안의 비수공적을 칭송하였다. “더러운 오랑캐 진나라 침범할 때 모두들 도망하기에 겨를이 없거늘, 자제를 동원해 비수에서 격파하니 신령스러운 공훈 천하를 덮었구나”라고 한 것이다.³¹

성종의 아들 燕山君代(재위 1494-1506)로 오면서 사안휴기동산도가 감계화 보다 감상화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간취된다. 연산 9년(1503) 2월의 “도화서에 명하여 사안이 동산에서 기생을 데리고 놀았던 그림을 본떠서 20 폭을 그리게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조 이창신이 화공들을 시켜 그림을 완성하여 진상했다”한 것이다.³² 연산 9년(1503) 12월의 기록도 찾을 수 있다. “전교하기를, 그리기 어렵고 쉬운 것이 있으나 기생을 동산에 데리고 가는 것 같은 것이 제일 그리기 어려운 것이니, 이런 그림을 제목으로 하여 각자 잘 배치하여 그려 들이도록 하라”했음의 내용이다.³³ 그런데 왜 연산군은 기생이 나오는 그림의 난이도가 더 높을 까닭이 없음에도 이러한 전교를 내린 것일까. 이는 아마도 기생을 데리고 노는 사안의 마음을 그리기 어렵다고 인식한 것이 아닐까 주목된다.³⁴ 이외에 연산 12년(1506) 5월의 “옛날 사안은 진나라 신하인데도 기생을 동산에 데리고 갔었는데, 하물며

29 “辛丑元日出歲畫六幅 賜于承政院 承旨六人 抽籤分受 者之得謝安石携妓東山圖 余得綵女圖 … 君上之賜 豈爲觀美而與之歟 庸詎知不爲聲色所誤者戒之歟”라고 했다. 成俔, 「題麗人圖後」, 『虛白堂集』 卷9.

30 “晉時 謝安携妓東山 故其俗終以放蕩虛無爲尙 晉室促亡”이라 했다. 『成宗實錄』 卷257, 22年 9月 5日.

31 “腥膻染伊洛 奉頭知無暇 舉子截淝水 神功蓋天下”라고 했다. 南孝溫, 「東山携妓」, 『秋江集』 卷2.

32 “命圖畫署 摹畫謝安携妓東山圖二十幅 至是 提調李昌臣 令工畫成以進”이라 했다. 『燕山君日記』 卷48, 9年 2月 7日.

33 “傳曰 畫有難易 如携妓東山 最難畫也 以此等圖爲題 各自鋪張畫入”이라 했다. 『燕山君日記』 卷51, 9年 12月 17日.

34 李荇(1478-1534)의 「題畫」가 참고된다.

“상강에 비는 스산히 내리고 반죽 숲은 희미하게 보여라. 여기서 그려 내기 어려운 것은 당시 두 왕비의 마음으로세(浙瀝湘江雨 依稀斑竹林 此間難寫得 當日二妃心)”라고 했다. 李荇, 「題畫」, 『容齋集』 卷1.



도 10 〈謝玄破秦百萬兵圖〉부분, 1715, 비단에 채색, 170×418.6cm, 國立中央博物館(『왕의 글이 있는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2008, 圖18)



도 11 蘇六朋, 〈東山報捷圖〉, 淸, 종이에 채색, 238×117cm, 廣州美術館(百度 <http://www.baidu.com/> 사진참조)

도 찾을 수 있다(도 10). 사안의 조카 사현이 부견의 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전투를 주제로 한 그림이다. 속종은 마지막 화면 위쪽에 “진나라의 사안은 뛰어난 명성이 있어 전진왕 부견의 백만 병사를 앞서서 물리쳤다”하였다.⁴⁰ 국왕이 그림을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를 보여준다. 중국에서도 사안의 비수승첩에 관한 그림을 찾을 수 있다. 명대 蔣乾의 〈謝安棋中報捷〉과 청대 蘇六朋(1791-1862)의 〈東山報捷圖〉(도 11) 등에서이다.

2. 현존하는 사안휴기동산도 표상의 함의

중국에서의 사안휴기동산도의 작례에 비해 현존하는 작품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김홍도의 〈東山雅襟〉과 〈東山携妓〉, 그리고 趙錫晉(1853-1920)의 〈携妓東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홍도의 두 작품 속에 나타난 화제와 도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안휴기동

⁴⁰ “晉時安石有 高名 坐却苻堅百萬兵”이라 했다.



도 12 金弘道, 〈東山雅襟〉, 18세기, 비단에 담채, 98.2 × 48.5cm, 국립중앙박물관(『檀園 金弘道·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 삼성문화재단, 1995, 圖179)

산도의 성격구명을 시도할 것이다. ‘濟世蒼生’과 ‘風流瀟灑’로 대별하여 그 시각적 표상의 함의가 집중 논의된다. 조선시대 중국의 역대인물 중 후대 사람들이 받들고 따라야 할 모범적 사례로 사안의 풍모가 칭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濟世蒼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김홍도의 〈동산아금〉은 사안이 기녀를 동반하고 동산에 오르는 장면을 담은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다(도 12). 전체적으로 필치가 섬세하며 정돈된 면모를 보여준다.⁴¹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18세기는 동아시아의 국제적 조류였던 탈속 심미적 문인문화가 무르익던 시기였다.⁴²

(1) 화제 분석

화면의 상단에는 ‘東山雅襟’의 畫題가 적혀 있다(도 12-1). 화제는 그림의 제목으로 작품분석에 있어 가장 실증적인 1차 자료이다. ‘雅’는 ‘바르다’라는 뜻이다.⁴³ ‘襟’은 본래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인 ‘옷깃’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爾雅·釋器』의 “이른바 옷의 깃이 포개지는

⁴¹ 50대 전반에 제작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필치가 섬세하며 정돈된 면모를 보여주며, 50대 이후의 거친 필묵법이 나오지 않는 점에 있다.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p. 204.

⁴² 홍선표, 『朝鮮時代繪畫史論』(文藝, 1999), p. 231.

⁴³ “雅正也”라고 했다. 邢昺撰, 『爾雅疏』卷1(上海: 商務印書館, 1934), p. 2.



도 12-1 화면 상단의 '東山雅襟' 畫題

것을襟(옷깃)"이라 했다.⁴⁴ 『說文解字·衣部』에서도 “衽은 옷깃(衣衽)이며, 衽은 ‘任(옷깃)을 교차하는 것이다. 衽은 衿자로 변하고 다시襟자로 변한다”했음을 찾을 수 있다.⁴⁵ 屈原(?BC 343-?BC 277)의 『離騷經』에서도 “눈물이 내 옷깃을 줄줄 흐르네”라고 하였다.⁴⁶

더 나아가 옷깃으로 썩이 여며진 저고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감싼 것, 즉 ‘가슴’이 되고 ‘가슴에 품은 생각(襟懷)’의 뜻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에는 가슴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깃과 앞섶을 잘 여미어야 한다는 데서, ‘襟’에는 ‘가슴’ ‘마음’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⁴⁷ 杜牧(803-852)

의 『題池州弄水亭』에서의 “의심컨대 번쩍이는 빛을 잡겠는가! 마음에 쌓아두려 한다네”라고 했음이 간취되며⁴⁸, 조선의 李滉(1458-1489) 또한 『謝安携妓東山』에서 “안석의 마음 쉽게 엇볼 수 없다네”라고 했다.⁴⁹

그렇다면 <동산아금>의 화제에 쓰여진 ‘襟’의 글자가 혹시 동산풍류의 참 뜻을 밝혀 주는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세설신어』와 『진서』에 수록된 사안의 ‘동산의 뜻(東山之志)’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에 접근된다.

『世說新語·識鑒』에서의 “사안이 동산에서 기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자, 간문제가 말하길 사안은 반드시(산에서) 나올 것이다. 이미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으니 또한 사람들과 함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음이 주목된다.⁵⁰ 동산은거의 그 근본에는

⁴⁴ “衣衽謂之襟”이라 했다. 이충구(외) 역주, 『이야주소(3)』(소명, 2004), p. 116.

⁴⁵ “衽衣衽也 衽交衽也 衽之字一變爲衿再變爲襟字”라고 했다.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p. 394.

⁴⁶ “霑余襟之浪浪”이라 했다. 김달진 옮김, 최동호 역음, 『고문진보(후집)』(문학동네, 2000), p. 33.

⁴⁷ <http://www.daum.net>, ‘강상헌의 만사칼럼, 큰 그릇과襟度’ 참조.

⁴⁸ “光潔疑可攬 欲以襟懷貯”라고 했다. 『全唐詩』 卷520(北京: 中華書局, 1992), p. 5947.

⁴⁹ “安石襟懷未易窺”라고 했다. 李滉, 『命題』, 『四雨亭集』 卷上.

⁵⁰ 『世說新語·識鑒』에서 “謝公在東山畜妓 簡文曰 安石必出 既與人同樂 亦不得不與人同憂”라고 했다. 劉義慶撰, 安吉煥譯, 앞의 책(중), p. 212.

창생 즉 백성이 함께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世說新語·排調』와 『晉書·謝安列傳』의 내용과도 상관된다. “그 후 환온의 사마가 되어 출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어사중승이었던 고령이 술기운을 빌어 조롱하기를, 경이 여러 번 조정의 뜻을 어기고 동산에 은거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매번 말하길 안석이(동산에서) 나오려 하지 않으니 장차 백성들을 어찌 할 것인가”라고 한 부분이다.⁵¹ 궁극적으로 『晉書·謝安列傳』의 “사안은 비록 조정에 몸을 맡겼지만 동산의 뜻에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다”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⁵² 동산 은거의 그 본래에는 기녀를 대동하고 풍류를 즐기면서도 혼란스런 세상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한 사안의 마음속에 품은 ‘제세창생’ 함의가 내포되었음에 접근된다. 이러한 인식은 사안을 사모하여 東山 관련 시문을 다수 남긴 李白의 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梁園吟』에서 “동산에 은거하여 시기가 도래하면 창생을 구제하여도 늦지 않으리”라고 한 것이다.⁵³ 명대 吳寬(1435-1504)의 『謝安遊東山圖』에서도 “용이 서릴 듯 동산에 은거하니 천하 사람들 사안을 바라 보네”라고 했다.⁵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산은거의 제세창생의 인식을 찾을 수 있다. 崔致遠(857-?)의 『桂苑筆耕』에서 처음 보인다. “사태부가 동산에서 홀연히 일어난 것은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⁵⁵ 고려의 李奎報(1168-1241)도 “안석이 동산에 있을 때 유상에 반드시 기생을 데리고 갔었지. 본래 뜻이 창생에 있었기에 끝내 창생을 위해 일어났네”라고 하였다.⁵⁶ 조선의 申欽(1566-1628) 역시도 “늦게야 막중의 손이 된 것은 오로지 창생 위해 나온 거라오”라고 했으며,⁵⁷ 高仁繼(1564-1647)도 “동산의 은거는 창생의 기대와 관계가 있다”라고 했다.⁵⁸

이러한 관련 사료들을 참고해 볼 때 ‘동산아금’의 화제는 기녀를 동반하고 동산에 오르는 사안의 마음 속 회포를 함의한 ‘제세창생’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周世鵬(1495-1554)의 『東山携妓圖』에서의 “사안의 본래 풍류는 마음껏 동산을 거

51 『世說新語·排調』에서 “後出爲桓宣武司馬 高靈時爲中丞 因倚如醉 戲曰 卿累違朝旨 高臥東山 諸人每相與言 安石不肯出 將如蒼生何”라고 했다. 劉義慶 撰, 安吉煥 譯, 앞의 책(하), p. 331; 이러한 내용은 『진서·사안열전』에서도 보인다. 房玄齡(唐) 等撰, 앞의 책, p. 2073.

52 “安雖受朝寄 然東山之志始末不渝”라고 했다. 房玄齡(唐) 等撰, 위의 책, p. 2076.

53 “東山高臥時起來 欲濟蒼生未應晚”이라고 했다. 『全唐詩』 卷166(北京: 中華書局, 1992), p. 1718.

54 “東山高臥如龍蟠 天下蒼生望謝安”이라고 했다. 陳邦彥, 앞의 책, p. 457.

55 “謝太傅之忽起東山 則烝黎是念”라고 했다. 최치원, 『賀除吏部侍郎別紙』, 『계원필경집』 卷19.

56 “安石在東山 遊賞必携妓 雅意在蒼生 終爲蒼生起”라고 했다. 李奎報, 『臨上闕復與寮友遊茅亭走筆』, 『동국이상국전집』 卷15.

57 “晚作幕中賓 端爲蒼生起”라고 했다. 신희, 앞의 책.

58 “高臥東山 係望蒼生”이라 했다. 高仁繼, 『祭柳修巖文』, 『月峯集』 卷4.

니는 것이네. 높은 정서(풍류마음) 쉬이 말할 수 없으니 기녀를 대동하니 한가로움 아니지. 구구하게 공연히 折屐⁵⁹하였겠는가 어찌 홀로 중국을 잊었겠는가”라고 했음도 참고된다.⁶⁰ 사안풍류의 뜻이 있고 기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에서도 최근 심주의 〈傲戴進謝安東山圖〉(도 6)를 분석한 논문에서 심주가 대진을 존송하는 것 외에 사안의 동산의 뜻을 상당히 인식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⁶¹

(2) 화면분석

다음으로는 화면의 분석이다. 상단에 그려진 높은 석축의 유상처는 사안과 기녀가 함께 오르려는 장소이다. 석축의 유상처 위로 구멍 뚫린 두 개의 透刻^敦이 놓여져 있다. ‘동산아금’의 화제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상처는 절강성의 회계 동산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회계지』에 수록된 동산의 험준함을 표현한 내용이나, 『三才圖會』의 〈東山圖〉(도 2), 그리고 심주의 〈傲戴進謝安東山圖〉(도 2) 등에 표현된 깊고 높은 산세의 동산의 모습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도 12-2 화면 하단의 謝安携妓와 景物

하단에는 사안과 기녀, 그리고 그 주위의 경물들이 표현되었다(도 12-2). 사안은 관모를 쓰고 소매가 넓은 포를 입었으며, 검은색의 단을 두르고 두 줄의 긴 띠를 여몄다. 지팡이를 짚고 거닐고 있다. 송나라 郭若虛의 『圖畫見聞志·論衣冠異制』에서의 “진대의 처사 풍익(?-430)은 소매가 넓은 포를 입었는데, 검은색의 단을 두르고 아래에 난을 입고 앞으로 두 줄의 긴 띠를

하단에는 사안과 기녀, 그리고 그 주위의 경물들이 표현되었다(도 12-2). 사안은 관모를 쓰고 소매가 넓은 포를 입었으며, 검은색의 단을 두르고 두 줄의 긴 띠를 여몄다. 지팡이를 짚고 거닐고 있다. 송나라 郭若虛의 『圖畫見聞志·論衣冠異制』에서의 “진대의 처사 풍익(?-430)은 소매가 넓은 포를 입었는데, 검은색의 단을 두르고 아래에 난을 입고 앞으로 두 줄의 긴 띠를

⁵⁹ 『晉書』권79 「謝安列傳」에서 찾을 수 있다. 사안이 그의 조카 玄을 보내어 秦兵을 막게 하였는데, 玄이 8천 명의 군사로서 진 나라 백만 대병을 대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때에 사안은 손님과 한창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손님을 보내고 너무 기뻐하던 나머지 문지방을 넘다가 나막신이 걸리어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지는 줄도 몰랐다는 내용이다. 房玄齡(唐) 等撰, 앞의 책, p. 2075.

⁶⁰ “謝傳本風流 東山恣意遊 高情未易說 携妓非閒謀 區區空折屐 何獨忘中州”라고 했다. 周世鵬, 「東山携妓圖」, 『武陵雜稿』卷40 別集.

⁶¹ 심주는 관직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안이 출사하기 전의 동산에서의 정경을 취했으며, 자신의 심정까지 서로 부합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葉庭嘉, 앞의 논문, p. 42.

여뒀다”했음이 참고된다.⁶² 사안을 뒤 따르는 두 명의 기녀도 두 손을 마주한 채 공손하다. 술상이나 쟁으로 보이는 악기는 들고 있지 않다. 清代 袁枚(1716-1797)의 「謝太傅祠」에서의 “동산의 여자 기생도 역시 창생이라”했음도 살펴볼 수 있다.⁶³

사안 주위로 긴 탁자 위의 공작 깃이 꽃인 청동기, 색지, 잔 등도 보인다. 두 마리의 사슴도 간취된다. 앞서 살펴 본 명대 《四時山景圖》 중의 〈謝安東山〉(도 5)과 沈周의 〈傲戴進謝安東山圖〉에서도 백록을 찾을 수 있다(도 6). 백록은 唐나라의 隱士 李渤(773-831)이 廬山 五老峯 아래 은거하며 흰 사슴 한 마리를 길렀던 데서 온 말이다.⁶⁴ 白居易의 「宿西林寺早赴東林滿上人之會因寄崔十二員外」에서도 “귀양 가며 대궐 떠나매 높은 벼슬아치들 멀어지고, 늙어서 여산에 들어가니 미륵이 따른다”했다.⁶⁵ 미륵은 즉, 노루와 사슴으로 산림이나 초야를 뜻한다. 오동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난초과의 일종으로 보이는 식물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동산아금〉에는 기녀를 대동하고 동산에 오르는 사안의 제세창생의 형상이 담겨졌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동산에 은거하며 ‘풍류’를 마음속으로 가져간 인물로 깊이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감상자 모두 사안과 관련된 역사나 일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온전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2) 風流瀟灑

간송미술관 소장의 김홍도의 〈동산휴기〉는 앞서 살펴 본 〈동산아금〉과 화면구성이 유사해 보이나, 화제인 ‘東山携妓’를 비롯해 사안을 뒤 따르는 기녀의 모습이 다르게 묘사되었다. 사안 주변의 경물 표현 또한 모두 생략되었다(도 13). 화제와 화면구성의 미세한 차이를 두어 사안의 풍류소쇄적인 은일풍류의 모습을 좀 더 드러내고자 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사안은 중국역사상 가장 풍류소쇄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위진 시대의 고매하고 광달한 인품을 가진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風流名士’이다. 재기와 학문이 뛰어나

62 “晉處士馮翼 衣布大袖 周緣以阜 下加襪 前繫二長帶”라고 했다. 郭若虛 지음, 박은화 옮김, 『도화전문지』(시공사, 2005), p. 58.

63 “東山女妓亦蒼生”이라 했다. 李靈年, 李澤平(共)譯注, 『袁枚詩文選譯』(成都: 巴蜀書社, 1991), p. 4.

64 이로 인하여 이곳을 백록동이라 부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백록선생이라 칭하였다(渤時隱居白鹿洞稱白鹿先生)라고 했다. 倪濤, 『辨石鐘山記』, 『六藝之一錄』第84.

65 “謫辭魏闕鸞隔 老入廬山樂鹿隨”라고 했다. 『全唐詩』卷439(北京: 中華書局, 1992), p. 4882.

지만 세속의 예법에 구속되지 않는 걸출한 인물들을 지칭한다.⁶⁶ 당나라 李延壽는 “王儉은 늘 사람들에게 강좌의 풍류재상으로는 사안뿐이라고 말했다”하였다.⁶⁷ 조선의 李睟光(1563-1628)도 “사안을 그때 세상에서 풍류재상이라고 하였다. 풍류라는 문자는 대개 본래 쯤나라 사람의 말이었다”라고 했다.⁶⁸ 또한, ‘소쇄’라는 두 글자는 王獻之(344-386)가 사안에 대하여 한 찬사에서 나온 말이다. “왕헌지가 사안을 보고 말하길, 공께서는 참으로 소쇄하십니다”라고 한 것이다.⁶⁹ 사안의 인격 됴이 맑고 깨끗하였음을 보여준다.⁷⁰

화면의 상단에는 ‘東山携妓’의 화제가



도 13 金弘道, 〈東山携妓〉, 18세기, 종이에 담채, 111.9×52.6cm, 간송미술관(『檀園 金弘道·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 圖172)



도 13-1 화면 상단의 ‘謝安携妓’ 畫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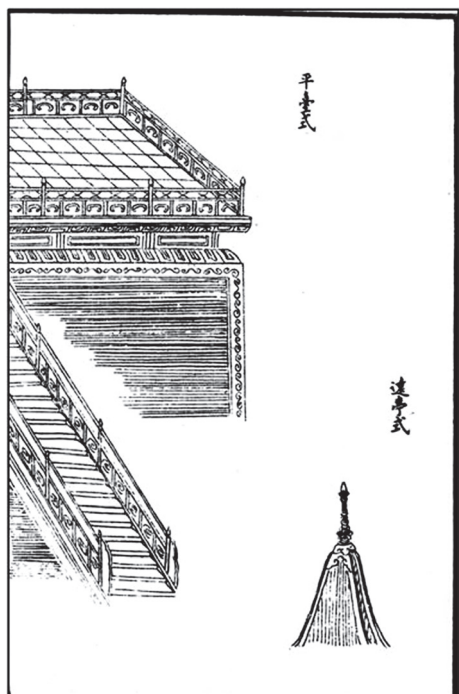
66 최병규, 『풍류정신으로 보는 중국문학사』(예문서원, 1998), p. 17.

67 “儉常謂人曰 江左風流宰相 惟有謝安”이라 했다. 李延壽 撰, 『王儉傳』, 『南史』 卷22(北京: 中華書局, 1975), p. 595.

68 “謝安時謂風流宰相 風流字 蓋本晉人語也”라고 했다. 李睟光, 『文章部』, 『지봉유설』 卷14.

69 『世說新語·賞譽』에서 “王子敬語謝公公故蕭灑”라고 했다. 劉義慶 撰, 安古煥 譯, 앞의 책(중), p. 369.

70 ‘灑’는 ‘맑다’는 뜻이고, ‘灑’는 ‘깨끗하다’ 등의 의미로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 된다.



도 13-2 <平臺式>, 「人物屋宇譜卷4」 『개자원화전』, 淸(『개자원화보대전』, 통문관, 1970, 285쪽)



도 13-3 화면 하단의 謝安携妓

적혀있다(도 13-1). 그 주위로 ‘丹丘’⁷¹의 글자와, ‘心醉好求’, ‘弘道’ ‘土能’의 도장을 찾을 수 있다. 오른쪽으로 쏠린 화면의 무게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石築의 유상처는 『개자원화전』의 「人物屋宇譜」중 ‘平臺式’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도 13-2).⁷²

화면의 하단에는 사안과 기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도 13-3). 사안은 관모를 쓰고 소매가 넓은 포를 입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거닐고 있다. 사안을 뒤 따르는 세 명의 기녀도 보인다. 두 명은 술상과 琴으로 보이는 악기를 들고 있으며, 한 명은 두 손을 마주한 채 공손하다. 沈周의 <傲戴進謝安東山圖>에서와 유사하다(도 6). 琴과 보파리(包袱)를 든 기녀와 두 손을 마주한 기녀의 모습에서이다. 또한, 琴의 표현을 통해 위진 풍도의 명사풍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음악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晉書』 「사안열전」에서의 “성정이 음악을 좋아했다”했음과⁷³, 명대 李東陽(1447-1516)의 「東山圖」에서의 “謝公은 옛날 동산 기슭에 은거하여, 산 속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지냈다”라고 했음이 참고된다.⁷⁴ 조선의 金尙憲(1570-1652) 역시 “謝太傅가 양쪽에 아름다운 기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도와 아취 있는 지조를 지니고 있다”하였다.⁷⁵

71 ‘丹丘’의 관서가 있어 만년의 대표적인 중국고사도이다. 진준현, 앞의 책, p. 207.

72 위의 책, p. 208.

73 “性好音樂”이라 했다. 房玄齡(唐) 等撰, 앞의 책, p. 2075.

74 “謝公昔臥東山麓 山中無日無絲竹”이라 했다. 李東陽撰, 「東山圖」, 『懷麓堂集』 卷9.

75 “謝太傅雙携婉婉 淸標雅操”라고 했다. 金尙憲, 「群玉所記」, 『淸陰集』 卷38.



도 14 趙錫晉, 〈携妓東山〉, 19세기, 비단에 채색, 32.5×144.8cm, 간송미술관(『간송문화』 7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0, 圖20)

이처럼 <동산휴기>에는 ‘풍류’라는 두 글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안의 맑고 깨끗한 모습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사안에 있어서 풍류는 바로 커다란 공명을 당대에 거두면서도 자신의 진실한性情을 잃지 않은 것이다. 중국과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완벽한 이상향으로 칭송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간송미술관 소장의 趙錫晉(1853-1920)의 〈携妓東山〉도 있다(도 14). 화면의 상단에 ‘携妓東山’의 화제가 적혀있으며, 비파와 쯤을 든 두 명의 기녀와 함께 사안이 동산에 오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도상이 점차 단순화되고 더욱 축약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의



도 15 馬壽, 〈携妓東山〉, 『詩中畫』, 1885, 국립중앙도서관

상해파 화가인 馬壽의 『詩中畫』(1885년 판화로 만든 책) 속의 〈携妓東山〉에서 그 기본적인 구도를 찾을 수 있다(도 15).

IV. 맺음말

조선에서는 중국에 비해 작품의 수는 적지만, 사안의 역사적 행적과 문화적 일화 등이 세밀히 인식되어 담겨졌다. 현존 작품이 많지 않아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나 김홍도의 〈동산아금〉과 〈동산휴기〉에서이다. 그 각각에는 畫題를 써 놓아 창작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특히 〈동산아금〉은 기녀와 관련된 사안의 풍류적인 모습을 담은 그림이라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녀를 동반하고 동산에 오르면서도 위진시대 혼란스런 세상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한 사안의 마음속 회포를 함의한 ‘제세창생’의 형상이 담겨졌을 것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화제로 쓰여진 ‘襟’이 ‘옷깃’이면서 ‘마음’, ‘생각’의 뜻이 된 글자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동산휴기〉는 〈동산아금〉과 같은 주제를 그렸지만 화제와 화면구성의 미세한 차이를 두어 사안의 풍류소쇄적인 은일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그런데 김홍도는 왜 이처럼 같은 주제를 그렸음에도 화제와 화면의 미세한 차이를 두어 그 시각적 표상을 대비시키려 한 것일까. 동산은 거의 제세창생과 풍류소쇄의 두 가지 본래의 참 뜻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 서화 제작 및 향유 풍조를 고려할 때, 김홍도가 사안휴기동산도를 제작함에 있어 오로지 화가 자신의 견문과 작화 의지에 따라 주제를 선택하고 화면을 구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홍도가 사안휴기동산의 관련 일화를 모두 간파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을 모두 체득한 상태에서 그림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김홍도의 작품이 古意를 지닌 까닭은 그의 전통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통시대 문화예술의 정치적 기능과 사회적 소통, 회화적 특징 등에 대하여 객관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선시대 회화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일본에서 사안휴기동산도가 제작되고 수용된 맥락을 함께 고찰하여, 동아시아 회화사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구주제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사안(Xie An), 동산(East Mountain), 김홍도(Kim Hong-do), 동산아금(*Righteous Mind of East Mountain*, Dongsanageum), 동산휴기(*Bringing Courtesans to East Mountain*, Dongsanhyugi)

■ 투고일 2015년 8월 23일 | 심사개시일 2015년 9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0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24일 ■

참고문헌

1. 史料

『舊唐書』
『說文解字』
『星湖僊說』
『世說新語』
『宋書』
『新唐書』
『梁書』
『晉書』

2. 辭典類

殷雪炎 編著, 『中國人物畫典』, 安徽美術出版社, 2002.
최병식 편저, 『동양 미술사전』, 감을출판사, 1989.

3. 圖錄 및 單行本

국립중앙박물관, 『檀園 金弘道』, 通川文化社, 1990.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 편저,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특별전』, 삼성문화재단, 1995.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한국박물관회, 2002.
국립중앙박물관, 『왕의 글이 있는 그림 御製』, 2008.
김규선, 『그림으로 읽는 역사 인물사전』, 아주문물학회, 2003.
金學主 譯, 『明代詩選』, 明文堂, 2005.
리처드반하트(등)지음, 정형민 옮김, 『중국회화사삼천년』, 학고재, 1999.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박정혜(외) 지음,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2011.
안휘준,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안휘준, 민길홍,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 학고재, 2009.
劉義慶 撰, 安吉煥 譯, 『(新完譯) 世說新語』, 明文堂, 2006.
최병규, 『풍류정신으로 보는 중국문학사』, 예문서원, 1998.

- 韓國民族美術研究所, 『澗松文華』 7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0.
- 홍선표, 『朝鮮時代 繪畫史論』, 文藝, 1999.
- 홍선표, 『한국의 전통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國立故宮博物院 編, 『故宮博物院藏品大系』, 北京: 紫禁城出版社, 2011.
- 房玄齡(唐) 等撰, 『晉書』, 北京: 中華書局, 1993.
- 司馬放, 『魏晉名士風流』, 北京: 武漢崇文書局, 2008.
- 新華書店北京發行所 編, 『詩中畫』, 北京: 新華書店, 1986.
- 劉雅茹, 『風流』, 北京: 中國海關出版社, 2009.
- 尹瘦石 主編, 『中國古畫譜集成』,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0.
- 任伯年(畫), 何恭上 主編, 『任伯年畫集』, 臺北: 藝術圖書公司, 1975.
- 中國古代書畫鑑定組 編, 『中國繪畫全集』, 北京: 文物出版社, 浙江人民美術出版社, 1997.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繪畫編』, 北京: 文物出版社, 1985.
- 海外藏中國歷代名畫編纂委員會, 『海外藏中國歷代名畫』,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1998.
- Barnhart, Richard M. et al. *Painters of the Great Ming: the Imperial Court and the Zhe School*, Dallas: Dallas Museum of Art, 1993.

4. 論文

- 김진영, 「世說新語의 품평을 통해 본 王導와 謝安의 인물형상」, 『중국문화연구』 3, 2004, pp. 351-379.
- 이성훈, 「숙종대 역사고사도 제작과 〈謝玄破秦百萬兵圖〉의 정치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6, 2009, pp. 36-68.
- 葉庭嘉, 「試探沈周〈仿戴進謝安東山圖〉意涵」, 『議藝份子』 20, 2013, pp. 33-45.
- 陳谷峰, 「謝安形象的歷史形塑及其文化意義初探」, 國立東華大學中國語文學系碩士論文, 2008.

5. 其他

- 승정원일기 <http://sj.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 百度 <http://www.baidu.com>

국문초록

사안은 중국 東晉의 문인, 사대부, 군사전략가, 정치가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風流瀟灑한 宰相으로 평가되었으며, 경륜과 지략이 뛰어난 인물로 인식되었다. 중국에서는 회화사상 사안을 주제로 한 작품이 비교적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사안이 出仕하기 이전 東山에서 은거하면서 풍류를 즐긴 정경을 제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기녀를 동반하고 동산에 오르는 장면을 담은 謝安携妓東山圖이다. 사안휴기동산 故事의 연원은 중국이지만 조선 전 시기를 걸쳐 시대적 이념을 주도하면서 인식되어지거나 그려졌다.

조선에서는 중국에 비해 작품의 수는 적지만, 사안의 역사적 행적과 문화적 일화 등이 세밀히 인식되어 담겨졌다. 현존 작품이 많지 않아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나 김홍도의 <동산아금>과 <동산휴기>에서이다. 그 각각에는 畫題를 써 놓아 창작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특히 <동산아금>은 기녀와 관련된 사안의 풍류적인 모습을 담은 그림이라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녀를 동반하고 동산에 오르면서도 위진시대 혼란스런 세상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한 사안의 마음속 회포를 함의한 ‘제세창생’의 형상이 담겨졌을 것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화제로 쓰여진 ‘襟’이 ‘옷깃’이면서 ‘마음’, ‘생각’의 뜻이 된 글자वाद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동산휴기>는 <동산아금>과 같은 주제를 그렸지만 화제와 화면구성의 미세한 차이를 두어 사안의 풍류소쇄적인 은일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서화 제작 및 향유 풍조를 고려할 때, 김홍도가 사안휴기동산도를 제작함에 있어 오로지 화가 자신의 견문과 작화 의지에 따라 주제를 선택하고 화면을 구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김홍도가 사안휴기동산의 관련 일화를 모두 간과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을 모두 체득한 상태에서 그림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김홍도의 작품이 古意를 지닌 까닭은 그의 전통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분석되어지지 않았던 작품에 대한 심화된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회화문화에 대한 학술적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Paintings of Xie An's Bringing Courtesans to East Mountain during the Joseon Period

Yu, Okkyong*

Xie An (謝安, 320–385) was a renowned man of letters, member of the literati elite, military strategist, and politician of the Eastern Jin Dynasty of China. He is now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honest and culturally refined prime ministers and one of the brightest military schemers in Chinese history. Xie An is also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historic figures in China. The painting that captures Xie An's secluded life in East Mountain with a female attendants was once particularly popular among artists. It was at East Mountain where Xie An enjoyed writing poetry and listening to music. Although the theme of such paintings originated from Chinese history, they were also popular in Korea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1392-1910).

Surviving works of this kind show that Joseon artists were much less productive than Chinese artists, but that they had access to richer resources concerning the history and culture related with the life of Xie An. *The Righteous Mind of East Mountain* (Dongsanageum) and *Bringing Courtesans to East Mountain* (Dongsanhyugi) by Kim Hong-do (1745-1806), for instance, bear titles which express the artist's intention in a more direct manner. In the first painting, the late Joseon artist focuses his attention more on the theme of “the salvation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than on the tasteful entertainment enjoyed by his contemporary literati elites, which generally involved the presence of a professional female entertainer(s), by connecting the theme with Xie An's efforts to relieve

* Ewha Womans University

people from the chaos of the world during the Wei and Jin periods. The artist's intention is connected with one character, *geum* (“collars”), of the four-character title, which also signifies “mind” or “thought”. Meanwhile, the second painting is thought to be intended to stress Xie An's aesthetic taste and his honest and decent personality. An analysis of the two paintings suggests that Kim Hong-do had comprehensive knowledge of Xie An and his hiking trip to East Mountain when he produced these paintings. Indeed, Kim Hong-do was able to produce works containing “ancient meanings” because he based his works upon his ample knowledge of tradition.